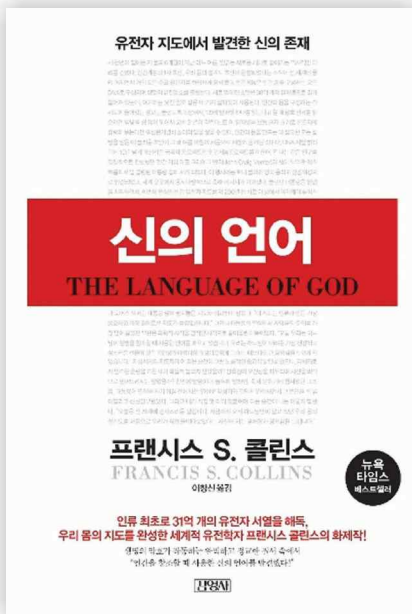


# 신의 언어 (The Language of God)

프랜시스 S. 콜린스, 저·이창신 옮김, 김영사, 2009

글 박희주 명지대학교 과학사학과 교수



4년 전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중 한 사람이며 이 시대의 대표적 무신론자로 꼽히는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국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서점(yes24)에 달린 150여개의 리뷰 글에서 이 책이 끼친 영향의 단편을 읽을 수 있었다. 몇 개만 소개한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책을 읽는 일주일 동안에 무너져 가자, 마음이 아팠다. 그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결국 종교는(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고통스런 현실을 잠깐 잊게 해 주는 물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은 대다수의 독자들처럼 저도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신이 있다고 믿었고, 신이 없다는 회의가 들기 시작한 후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나에게 만들어진 신은 하나의 길 이 되었다.”

『신의 언어』를 소개하는 서평에 『만들어진 신』을 길게 언급한 이유는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킨스를 반박하는 많은 책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도킨스와 필적하는 중량급 과학자가 복음주의 신앙을 변호하는 책을 쓴 경우는 『신의 언어』가 처음이다.

## 프랜시스 콜린스

프랜시스 콜린스는 아폴로 11호 이후 최대의 과학프로젝트로 일컫는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이끈 과학자로서 2003년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완성을 발표한 인물이다. 전 세계에 방영된 행사를 통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선포했고 콜린

콜린스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이성적 선택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앙의 원칙과 과학의 원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이 책의 집필목적에서 말하고 있다.

스는 “지금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있던 우리 몸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저는 겸허함과 경외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p.7)

콜린스는 『신의 언어』 머리말에서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이성적 선택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신앙의 원칙과 과학의 원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p.8) 첫 번째 목적은 이성적 선택의 결과는 무신론이라는 도킨스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다. 둘째 목적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조화임을 보이는 데 있다. 콜린스는 과학과 종교 “양쪽의 조화는 이 논쟁의 극단을 점령한 자들이 외치는 귀청이 떨어질 듯한 주장에 가려지고” 있으며 “적대 세력 간의 점점 고조되는 불협화음은” 우리를 혼란과 실망에 빠뜨린다고 탄식한다. 콜린스는 이러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양 극단으로 도킨스와 젊은지구창조론을 지목한다. 콜린스는 대립 대신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이 더없이 만족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콜린스의 신앙여정

콜린스는 이 책의 1장에서 자신의 신앙여정에 대해 말한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 다닌 적은 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회의론으로 기울다 대학원 시절에는 급기야 무신론까지 가게 된다. 당시 콜린스는 지각 있는 과학자가 신을 믿는 것은 ‘지적 자살 행위’라고까지 생각했다. 이러한 콜린스의 무신론을 돌려놓은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다. 특히 그에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은 루이스의 ‘도덕법’ 개념이었다. 이는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며 그 법의 기원은 신일 수밖에 없음을 콜린스는 확신하게 된다. ‘도덕법’ 개념에 대한 콜린스의 논의는 10쪽이 채 되지 않아 깊이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독자를 위한 과학자의 논의로서는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정작 평가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과학자로서 콜린스의 기독교 변증이다. 이는 3장에서 등장한다.

과학자로서의 콜린스를 무신론에서 돌려놓은 것은 ‘빅뱅(대폭발)’이었다.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점이 있으며 대략 140억 년 전의 대폭발로부터 우주는 시작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또는 무엇이 대폭발을 초래했는가”라는 의문은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의문이며 콜린스는 대폭발을 설명하려면 “신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 유물론의 기반은 물질이며 물질의 궁극적 기원은 대폭발이다. 그러나 대폭발의 원인은 콜린스의 지적과 같이 현대과학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는 과학적 이성을 강조하며 현대과학의 결론은 무신론이라고 주장해 온 도킨스 같은 유물론자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3장은 과학자로서 저자의 강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젊은지구창조론이 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공격함으로써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에 오히려 그 둘의 틈을 더욱 벌려 놓으며, 과학에서나 신학에서나 지적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 기독교와 과학, 그리고 우주의 기원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평자에게 가장 흥미롭게 와 닿은 부분은 이 책의 두 번째 목적을 다룬 7-10장이다. 기독교와 과학 특히 우주와 인간의 기원 문제를 둘러싼 소위 창조-진화 문제에 대해 저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콜린스는 무신론, 창조론, 지적설계론, 그리고 자신의 관점인 바이오로그스네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7장은 무신론에 대한 소개이자 강한 비판이며 도킨스의 주장들을 주된 타깃으로 삼는다. 8장에서는 도킨스의 대적점에서 있으며 국내에 창조과학이란 이름으로 널리 소개된 ‘젊은지구창조론’을 다룬다. 콜린스는 지구연령이 6천년-2만년이라고 믿는 젊은지구창조론에 대해 도킨스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날을 세운다. 이는 “과학의 거의 모든 영역을 공격하여, 과학적 세계관과 영적 세계관의 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에 오히려 그 둘의 틈을 더욱 벌려” 놓으며 “과학에서나 신학에서나 지적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9장에서는 창조과학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지적설계론을 다룬다. 콜린스는 “지적설계론은 진지하게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젊은지구창조론에 비해서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실험적 증명도 제시하지 못했고 핵심적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실패한 이론”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특별히 콜린스가 문제 삼는 부분은 소위 ‘빈틈을 메우는 신’이다. 이는 당대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신의 개입으로 돌려 해결하는 방식을 일컫는데 지적설계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대표적인 지적설계론자 베히가 제시하는 ‘환원불가능한 복잡성’을 보자. 이는 분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생물학적 현상들은 너무나 복잡해 진화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며 최선의 설명은 초월자의 지적설계란 주장이다. 콜린스는 과학의 발전이 지적설계 대신 그 틈을 메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며 그 예로 혈액의 응고과정, 눈, 박테리아의 편모에 대한 최근의 과학이론을 소개한다.

## 바이오로그스

콜린스는 이상의 세 가지 입장을 설명한 뒤 이들 모두는 기독교와 과학을 분열시키는 입장이며 조화를 위해서는 네 번째 입장인 '바이오로그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이오로그스는 그동안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알려졌던 입장에 콜린스가 새롭게 붙인 이름이다. 진화라는 용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감안한 작명인데 그리스어로 생명과 말씀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콜린스는 그 핵심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한다.

- . 우주는 140억 년 전 무에서 창조됨
  - . 최초 생명체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일단 생명이 탄생하고 진화가 시작되고 부터는 초자연적 존재의 개입이 불필요
  - . 인간도 진화론적 과정의 일부로 탄생했으며 유인원과 조상을 공유
  - . 하지만 정신적 본성을 지향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예, 도덕법)
-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는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콜린스는 믿는다.

## 유신론적 진화론, 그리고 아쉬운 점

평자가 보기에 유신론적 진화론은 조화의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신론적 진화론도 콜린스 자신이 비판한 '빈틈을 메우는 신' 문제를 비켜가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당연히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나아가 자연을 창조한 이후 신은 자연의 운행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믿는 이신론의 입장이 아니라면 유신론적 진화론 역시 자연은 창조주의 지탱하는 손길을 필요로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에는 어떤 형태로건 신과 연결되는 접점이 존재

하며 이는 자연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빈틈'이 된다. '젊은지구창조론'이던 '지적설계론'이던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던 빈틈의 종류와 크기만 다를 뿐 '빈틈'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손쉽게 빈틈으로 간주해 신의 개입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최선을 다해 피해야하지만 이러한 빈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신론적 자연관이 가능한 것처럼 빈틈을 문제시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평자가 느끼는 또 다른 아쉬움은 저자의 어휘선택과 표현에 있다. 이 책이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 독자층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의 상당수가 지지할지 모르는 '젊은지구창조론'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 파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은 자제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평자도 개인적으로 '젊은지구창조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지만, 형제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용어로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와 과학의 조화를 이룰지는 몰라도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화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아쉬움을 뒤로 한다면 이 책은 도킨스를 필두로 쏟아지는 유물론의 공세로부터 유신론을 변증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때는 무신론자였던 세계적인 과학자가 자신의 복음주의 신앙체험과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교회에 '젊은지구창조론' 일색으로 소개된 창조-진화 담론의 편향성을 고려할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